

『本草經集注』에 대한 書誌學的 연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 韓醫學古典研究所²

金溶珠^{1. 2} · 白裕相^{1. 2} · 張祐彰^{1. 2} · 丁彰炫^{1. 2 *}

A Bibliographical Study on 『Bonchogyongjipju(本草經集注)』

Kim Yong-joo^{1. 2} · Baik You-sang^{1. 2} · Jang Wu-chang^{1. 2} · Jeong Chang-hyeon^{1. 2 *}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Bonchogyongjipju(本草經集注)』 is a pharmacological classic published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南北朝時代, 420-589 A.D.) in China by Dohonggyeong(陶弘景, 456-536 A.D.). In 『Bonchogyongjipju(本草經集注)』, Dohonggyeong(陶弘景) edited 『Sinnongbonchogyong(神農本草經)』, the earliest classical text about material medica containing notes for 365 drugs, by adding another 365 drugs and further information from 『Myeong-uibyeollok(名醫別錄)』 and writing extended commentaries on them. His commentaries include changes in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identification of varieties and other various special characteristics. The original text had gradually disappeared after other pharmacological classics were published such as 『Sinsuboncho(新修本草)』, in Tang Dynasty(唐代), 『Gyeongsajeungryubigeupboncho(經史證類備急本草)』 in Song Dynasty(宋代). All of these books were based on 『Bonchogyongjipju(本草經集注)』, so the original text can be seen indirectly through these later sources. In the early 1900's, a transcribed manuscript of the preface 『Bonchogyongjipju(本草經集注)』 was found almost wholly preserved except the first three lines, in the Makgo(莫高) cave of Donhwang(敦煌). Broken strips of transcribed 『Bonchogyongjipju(本草經集注)』 have also been excavated in Turfan[吐魯番], which shows its original form written in red and black ink. Mayanagi Makoto[真柳誠] researched on Donhwang(敦煌) and Turfan[吐魯番] editions, ascertained their existence and explained their bibliographical and historical facts. Sangjigyun(尙志鈞) restored 『Bonchogyongjipju(本草經集注)』 based on other related sources such as Donhwang(敦煌) and Turfan[吐魯番] editions. 『Bonchogyongjipju(本草經集注)』 can be said as the locus classicus(典範) of herbal medicine, that is most of the following materia medica was based on it.

It makes it possible to pass down 『Sinnongbonchogyong(神農本草經)』 to posterity and provide a foundation for herbal medical development.

Key Words : Bonchogyongjipju(本草經集注), Dohonggyeong(陶弘景), Sinnongbonchogyong(神農本草經)

I. 緒論

『本草經集注』는 중국 南朝時代 陶弘景이 편찬한 본초학 서적으로 『神農本草經』 이후 본초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의 730여 약물의 정보를 수록하고 產地, 採集時期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해 주석을 추가하였다. 唐代 勅撰 본초서적인 『新修本草』와 宋代 『經史證類備急本草』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이들 서적의 등장 이후 점차 사라져 책의 원형이 전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내용이 『新修本草』, 『經史證類備急本草』, 『本草綱目』 등 후대 본초학 서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1900년대 초, 敦煌 석굴의 유물 중 『本草經集注』의 「卷第一·序錄」 필사본이 처음 세 줄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며, 吐魯番 발굴 유물 중 『本草經集注』의 豚卵, 燕屎, 天鼠屎 등에 해당하는 殘卷이 발견되어 원서의 일부 모습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本草經集注』는 본초학 발달의 典範이 되는 서적으로 한의학의 학문적 원형을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本草經集注』의 저자, 편찬 년대와 과정, 현존판본 및 복원본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현존판본에 대해서는 1900년대 초 敦煌과 吐魯番에서 출토되어 현재 일본과 독일의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직접 실사하여 연구를 진행한 眞柳誠의 연구 결과를 위주로 고찰하였다. 또 복원본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간권을 토대로 골격을 짜고 『本草經集注』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용한 『新修本草』 현존본과 『經史證類備急本草』 등을 저본으로 하여 복원 연구를 진행한 尙志鈞의 복원 과정을 고찰하였다. 설사 복원본이 『本草經集注』 본래의 모습을 완벽하게 되살렸다 하기 힘들더라도 현재 진행된 복원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비단 그 결과를 통해 현재 전하는 복원본의 신뢰성을 확인하여 앞으로 『本草經集注』에

* 교신저자: 丁彰炫,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jeongchang@khu.ac.kr Tel: 02-961-0337.
Fax: 02-961-9229.
접수일(2010년 2월 20일), 수정일(2010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2010년 3월 18일)

대한 다양한 연구에의 활용 가치를 타진해 보는 것 뿐 아니라 한의학의 원전 연구 과정에서 등장하기 쉬운 散佚本에 대한 復原研究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本論

1. 저자 및 저작 시기

『本草經集注』의 저자는 南朝 시대의 陶弘景으로 알려져 있다. 陶弘景의 이름을 빌린 후인의 저작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隋書經籍志』¹⁾ 등의 기록을 볼 때 陶弘景을 저자로 보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이다. 陶弘景은 자가 通明이며, 단양 말릉(남경시 동남) 사람으로 南朝 宋 元嘉 29년(서기 452년)에 태어나서 梁 大同 2년(서기 536년) 향년 85세로 죽었다. 陶弘景은 소년 시에 葛洪의 『神仙傳』을 애독하여 그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19세에 왕의 侍讀官이 되어 왕의 충애를 많이 받았다. 41세에 관직을 그만 두고 句容의 茅山에 은거하면서 자호를 華陽隱居라 하였기 때문에, 후인들이 그를 陶隱居라 불렀다.²⁾ 은거 이후에는 “도경의 방법을 받아 명산을 다니며 신선이 되는 약을 구하였다.(受符圖經法, 徧歷名山, 尋訪仙藥)³⁾”라 하였고 또 “성품이 책을 저술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또 음양오행의 이치와 風角星算의 방법, 산천의 지리, 지방의 지도와 산물 그리고 의술과 본초에 밝았다.(性好著述……尤明陰陽五行, 風角星算, 山川地理, 方圖產物, 醫術本草.)⁴⁾”라고 했다.⁵⁾ 서기 629년에 편찬된 『梁書·列傳』에는 “제대년력을 저술하고, 또 일찍이 혼천상을 만들었다.(著帝代年曆, 又嘗造渾天象)”고 하였고, 서기 659년 편찬된 勅撰(勅撰) 본초

- 1) 許嘉璐 主編. 梁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p.664-665. “陶隱居本草十卷… 陶弘景本草經集注七卷… 神農本草四卷雷公集注… 神農本草經三卷… 名醫別錄三卷陶氏撰”
- 2) 洪元植, 尹暢烈 編著. 증보중국학사. 서울. 一中社. 2002. p.204.
- 3) 許嘉璐 主編. 梁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p.664-665.
- 4) 四庫全書史部·正史類·舊唐書·列傳 卷五十一. 文淵閣欽定四庫全書CD.
- 5) 洪元植, 尹暢烈 編著. 증보중국학사. 서울. 一中社. 2002. p.204.

서인 『新修本草序文』에는 “梁의 七錄에 『神農本草經』3권에 도씨가 別錄을 더하여 7권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⁶⁾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들은 『本草經集注』의 저자가 陶弘景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데 『本草經集注序文』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隱居선생께서 茅山の 岩巖에 계시실 적에 토납법(吐納法, 도가의 호흡법)으로 여가를 보내시며, 方術에 심히 뜻을 두셨다. 또 『本草經』의 藥性을 살펴보고는 성인께서 마음을 다하신 것이라 여겨 이를 정리하여 논한다.”⁷⁾

『隋書』, 『舊唐書』, 『新唐書』등의 正史類를 비롯하여, 『新修本草』, 『證類本草』등 당대의 官撰 본초서적에서도 『本草經集注』의 저자를 陶弘景이라 여기고 있는데, 정작 『本草經集注』의 시작은 “은거선생”이란 존칭으로 시작된다. 『梁書』에 “스스로를 화양은거라 하였다.(自號華陽隱居)”⁸⁾는 기록을 통해 보아도 자신의 글에 스스로를 先生이라 호칭하는 것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隋書經籍志』⁹⁾를 보면 陶弘景이 『肘後備急方』¹⁰⁾을 토대로 『補闕肘後一方』을 편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인민위생출판사

에서 1963년 편찬한 『葛氏肘後備急方』을 보면 「華陽隱居補闕肘後一方序」¹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太歲庚辰, 隱居曰…凡用半夏, 皆湯洗五六度, 去滑. 附子·烏頭, 炮, 去皮, 有生用者, 隨方言之…麥門冬皆去心…巴豆皆去心皮, 熬, 有生用者, 隨而言之. 巴豆·桃杏仁之類, 皆別研搗如膏, 乃和之. 凡湯中用芒硝·阿膠·飴糖, 皆絞去滓, 納湯中, 更微煮令消. 用麻黃即去節, 先煮三五沸, 掠去沫後, 乃入餘藥. 凡如上諸法, 皆已具載在余所撰本草上卷中.”¹²⁾

이는 몇 가지 약물의 수치법을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마지막에서 “이와 같은 방법은 모두 이미 내가 편찬한 본초서의 상권 속에 기재되어 있다.(凡如上諸法, 皆已具載在余所撰本草上卷中.)”고 하였다. 위 문장이 『本草經集注序錄』의 약물수치 부분과 완전 일치하지는 않고 보다 간결하지만 내용이 벗어나지 않고 있어 「華陽隱居補闕肘後一方序」의 저자가 직접 본초서적을 편찬하거나 혹은 그 책의 내용을 보고서 중요하다 여겨 서문에 인용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시작 부분의 “太歲 庚辰”을 陶弘景의 생애 기간인 서기 500년으로 보아 『本草經集注』이 그 이전에 저적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³⁾ 하지만 『本草經集注』의 서록에서 “隱居先生”이라 하였고, 『補闕肘後一方』의 서문에서도 “隱居曰”이라고 한 것이 통상적인 저자의 기술 방법을 벗어난다는 점은 두 서적의 서록과 서문을 陶弘景이 직접 저술하였다기 보다는 陶弘景의 학술사상을 따르는 후학이 그가 남긴 내용을 정리하고 그의 이름을 빌어 책을 구성하고 서록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 6) 蘇敬等撰. 尙志鈞輯校. 新修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4. p.4. “惟梁七錄, 有神農本草三卷, 陶據此以別錄加之爲七卷”
- 7) 陶弘景編. 尙志鈞尙元勝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 “隱居先生, 在乎茅山岩巖之上, 以吐納餘暇, 頗遊意方技, 覽本草藥性, 以爲盡聖人之心, 故撰而論之”
- 8) 許嘉璐主編. 梁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p.664-665.
- 9) 許嘉璐主編. 隋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p.922-924. “肘后方六卷 葛洪撰, 梁二卷陶弘景, 補闕肘後一方九卷, 亡”
- 10)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 1卷.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9. p.271. “『肘後備急方』은 중국晋나라 葛洪이 편찬한 方書로 肘后方으로 부르기도 한다. … 처음에는 肘後救卒方 또는 肘後卒救方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후에 梁나라 陶弘景이 101방을 증보해서 補闕肘後一方으로 개명하였다. 그 후 금나라 楊用道가 證類本草 중에서 뽑은 單方을 덧붙여 附廣肘後方이라 이름한 것이 현존하는 『肘後備急方』이다”

11) 葛洪撰. 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4.

12) 葛洪撰. 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6.

13) 吳昌永. 神農本草經에 관한 研究. 大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54. “책이 이루어진 시기는 남북조 南齊 永元二年(500) 이전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서가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기재된 바가 없지만 『補闕肘後一方』을 참고하여 보면 陶弘景이 序에서… 라고 한 것처럼 이전에 이미 본서는 완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해 유사한 견해를 가지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敦煌에서 출토된 상한론 관련 문헌인 『輔行訣藏府用藥法要』에는 “華陽隱居陶弘景撰”이라 나와 있다. 이에 대해 陶弘景의 이름을 가탁한 저작으로, 陶弘景 이후 隋唐代에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⁴⁾. 중국 사회과학원의 張政烺, 李學勤은 “이 책은 근대의 위작이 아니다. 다만 빠르기가 梁代까지 이르는 불가능한 작품이다. … 후대의 사람이 陶弘景의 설을 集錄해서 만들었고, 본래의 선생을 존경하는 뜻에서 책 이름 아래에 「華陽隱居陶弘景撰」라고 題를 가하였다.”라고 감정하였다.¹⁵⁾

책의 저작 시기에 대해 앞서 『補闕肘後百一方』의 서문 작년 년대인 서기 500년 이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⁶⁾ 비록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동일인의 이름으로 편찬된 두 권의 책 중 한 권의 서문에서 년대와 선후를 언급하였다면 이를 통해 대략적인 간행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隋書經籍志』¹⁷⁾, 『舊唐書經籍志』¹⁸⁾에는 각기 “梁有…陶弘景本草經集注七卷”, “本草經集注七卷 陶弘景撰”라 하여 『本草經集注』가 7권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補闕肘後百一方』의 서문에서 언급된 본초서는 “上卷”¹⁹⁾으로, 이는 上下 二卷, 혹은 上中下 三卷의 체계로 이루어진 서적임을 의미

하고 있다. 그렇다면 『補闕肘後百一方』의 서문에서 언급된 본초서가 『本草經集注』와는 또 다른 서적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本草經集注·序錄』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책의 편찬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神農本草經』의 삼품 365가지 약물을 위주로 하고, 또 『名醫』의 부품(副品) 365가지를 합하여 730종을 수록하였다. …이에 겸하여 世用(일반 의방에서 사용하는 내용), 산출되는 곳 및 仙經과 道術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주를 달고, 이 序錄을 아울러 합하여 三卷을 만들었다.”²⁰⁾

“『本草經集注』의 상권에서는 藥性の 本원을 서술하고 病名의 形태와 진단에 대해 설명하며, 品錄을 표제에 기록하고 약물의 사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중권에는 玉石·초(草)·목(木)의 삼품을 합한 356종을 수록하였다. 하권에는 蟲獸·과(果)·채(菜)·미식(米食)의 삼품(三品)을 합한 195종과,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3품을 합한 179종, 도합 374종을 수록하였다.”²¹⁾

“이상의 3권에서, 그 중·하 2권에 730여종의 약물을 수록하여 각기 별도로 목록을 설정하여 주서(朱書)와 묵서(墨書)를 섞어 사용한 것과 陶弘景의 주석을 아울러 방대한 서적을 나누어 7권으로 만들었다.”²²⁾

14) 박종현, 박시덕, 신상우. 敦煌本 傷寒論 中 『輔行訣藏府用藥法要』에 관한 研究.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3(1). p.45.
15) 박종현, 박시덕, 신상우. 敦煌本 傷寒論 中 『輔行訣藏府用藥法要』에 관한 研究.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3(1). p.45. : 王淑民. 『敦煌石窟秘藏醫方』. 北京. 北京醫科大學中國協和醫科大學聯合出版社. 1999. p.19. 재인용.
16) 吳昌永. 神農本草經에 관한 研究. 大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54. “책이 이루어진 시기는 남북조 南齊 永元 二年(500) 이전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서가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기재된 바가 없지만 『補闕肘後百一方』을 참고하여 보면 陶弘景이 序에서 … 라고 한 것처럼 이전에 이미 본서는 완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7) 許嘉璐 主編. 隋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p.922-924.
18) 許嘉璐 主編. 舊唐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1602.
19) 葛洪 撰. 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6. “이와 같은 방법은 모두 이미 내가 편찬한 본초서의 상권 속에 기재되어 있다.(凡如上諸法, 皆已具載在余所撰本草上卷中.)”

20) 陶弘景 編.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3-6. “以『神農本經』三品合三百六十五爲主, 又進名醫副品, 亦三百六十五, 合七百卅種, …兼注 諸世用, 土地所出, 及仙經道術所須, 並此序錄, 合爲三卷.”
21) 陶弘景 編.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3-6. “本草經卷上. 序藥性之本源, 詮病名之形診, 題記品錄, 詳覽施用之. 本草經卷中. 玉石草木三品, 合三百五十六種. 本草經卷下. 蟲獸果菜米食三品, 合一百九十五種, 有名無實三條, 合一百七十九種. 合三百七十四種.”
22) 陶弘景 編.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3-6. “右三卷, 其中下二卷, 藥合七百卅種, 各別有目錄, 並朱墨雜書, 並子注. 大書分爲七.”

이는 『本草經集注』가 처음에는 3권의 형태로 만들어 졌다가 다시 7권의 형태로 편찬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補闕肘後百一方』序文의 “本草上卷”은 초기 3권의 형태로 만들어진 『本草經集注·上卷』을 말하고 있으며, 개별 약물의 기록을 中·下 2권에 실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序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本草經集注』는 서기 500년 이전에 上中下 三卷으로 만들어 졌다, 서기 500년 이후에 다시 七卷으로 편찬되었으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이 “七卷本”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本草經集注』 및 陶弘景과 관련하여 역대 주요 서적에 언급된 내용을 아래 <표 1.>에 정리해 보았다.

서명	년대 및 내용
『本草經集注·序錄』	저작 년대: 500년 전후 필사 년대: 718년경 “今輒苞綜諸經, 研括煩省. 以『神農本草經』三品合三百六十五爲主, 又進名醫副品, 亦三百六十五, 合七百卅種. 精粗皆取, 無復遺落, 分別科條, 區畛物類, 兼注詒世用, 土地所出, 及仙經道術所須, 並此序錄, 合爲三卷. ... 右三卷, 其中·下二卷, 藥合七百卅種, 各別有目錄, 並朱·墨雜書, 並子注. 大書分爲七.”
『補闕葛氏肘後·華陽陶隱居序』 ²³⁾	저작 년대: 500년(庚辰) “太歲庚辰, 隱居曰, ... 凡如上諸法, 皆已俱載在余所撰『本草·上卷』中.”
「華陽隱居先生本紀錄」 ²⁴⁾	저작 년대: 502~556년 “勤條先生所撰記世道書名目如左, ...『本草經注·七卷』”
『梁書·列傳』 ²⁵⁾	저작 년대: 629년 “陶弘景, 字通明, 丹陽秣陵人也. ... 尤明陰陽五行, 風角星算, 山川地理, 方圖產物, 醫術本草. 著

	『帝代年歷』, 又嘗造渾天象.”
『隋書·經籍志』 ²⁶⁾	저작 년대: 656년 “梁有...『神農本草經』五卷...『陶隱居本草』十卷...陶弘景『本草經集注』七卷...『神農本草』四卷, 雷公集注...『神農本草經』三卷...『名醫別錄』三卷, 陶氏撰” “『肘后方』六卷, 葛洪撰, 梁二卷, 陶弘景『補闕肘後百一方』九卷, 亡.”
『新修本草·序』 ²⁷⁾	저작 년대: 659년 “惟梁『七錄』, 有『神農本草』三卷, 陶據此以『別錄』加之爲七卷, 序云三品混糅, 冷·熱舛錯, 草·石不分, 蟲·獸無辨, 豈使草木同品, 蟲獸共條, 披覽既難, 圖繪非易.”
藤原宮 발굴목간 ²⁸⁾	저작 년대: 694~710년 “『本草集注』上卷”
『續日本記』 ²⁹⁾	저작 년대: 787년 “典藥寮言. 蘇敬注『新修本草』與陶隱居『集注本草』相{テヘン+兪}, 增一百余條. ... 請行用之, 許焉”
『日本國見在書目錄』 ³⁰⁾	저작 년대: 875~891년 “『神農本草』七, 陶隱居撰, ...『本草夾注音』一, 陶隱居撰, ...『注本草表序』一, 陶隱居撰”
『舊唐書·經籍志』	저작 년대: 940~945년 “『名醫別錄』三卷, 『藥目要用』二卷, 『本草經集注』七卷, 陶弘景撰” ³¹⁾ “『眞誥』十卷, 陶弘景撰...『道要』三十卷, 『登眞隱訣』二十五卷, 陶弘景撰” ³²⁾
『新唐書·藝文志』	저작 년대: 1060년 “陶弘景『集注神農本草』七卷.” “陶弘景『登眞隱訣』一十五卷, 又

	『眞誥』十卷 ³³⁾
『經史證類備 急本草序』	저작년대: 1082年 “至梁, 陶隱居, 又進『名醫別錄』, 亦三百六十五種, 因而注釋, 分爲 七卷.”

표 1. 역대문헌의 本草經集注 관련내용

2. 판본

앞서 논한 것과 같이 『本草經集注』는 처음 3권으로 편찬하여, 상권에 서록을 실고 중·하권에 개별 약물의 정보를 수록하였다가 이를 7권으로 다시 편찬하여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원서는 北宋 말년에 亡佚되었고, 그 내용이 관련 의서 중에 보존되어 있던 중³⁴⁾ 敦煌(Dunhuang)과 吐魯番(Turfan)

- 23) 葛洪 撰. 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4.
24)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8. 『雲笈七籤』卷107. 『正統道藏』第38冊·大玄部.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77. p.371. 재인용. : 李一珉. 道藏·第二冊·雲笈七籤·卷一百七. 北京. 文物出版社. 1988. p.733.
25) 許嘉璐 主編. 梁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p.664-665.
26) 許嘉璐 主編. 隋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p.922-924.
27) 蘇敬 等 撰. 尙志鈞 輯校. 新修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4. p.4.
28)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8. <http://www.nabunken.go.jp/open/mokkan/mokkan2.html>
29)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8. “797年成立の『續日本紀』桓武天皇·延暦6年(787)5月15日条には, 「典藥寮言. 蘇敬注『新修本草』と陶隱居『集注本草』相(テヘン+僉), 増一百余条. …請行用之, 許焉.” : 藤原繼繩ら. 續日本紀. 東京. 吉川弘文館. 1935. p.524. 재인용.
30)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8. “875~91年頃成立の『日本國見在書目録』には, 「『神農本草』七(卷)陶隱居撰. …『本草夾注音』一(卷)陶隱居撰. …『注本草表序』一(卷)陶隱居撰.” : 藤原佐世. 日本國見在書目録. 東京. 名著刊行會. 1996. pp.80-81. 재인용.
31) 許嘉璐 主編. 舊唐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1602.
32) 許嘉璐 主編. 舊唐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1602.
33) 許嘉璐 主編. 新唐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1251.

그리고 일본의 藤原宮 유적에서 殘本 및 木簡이 발견되었고 眞柳誠은 이에 대한 실사와 고증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1) 敦煌本 : 「序錄」의 전문이 거의 보존된 필사본

『本草經集注·序錄』이 敦煌의 석굴에서 발굴되어 일본으로 전해지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08년 西本願寺의 주지승인 大谷光瑞의 명에 의해 중국 서역과 중앙아시아를 돌아보러 간 橋瑞超가 敦煌의 慕高堀에서 발견된 문서의 일부를 구입하여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³⁵⁾ 이에 대해 眞柳誠이 추가적으로 밝힌 사실은 1912년 橋瑞超를 만나러 떠난 吉川小一郎이 慕高동굴을 발견한 道교승려 王門籙에게서 문서를 구입하였지만, 橋瑞超가 吉川小一郎보다 일찍 일본으로 돌아와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⁶⁾ 즉, 道교승려 王門籙가 慕高동굴에서 발견한 것을 吉川小一郎가 구입하였고, 이것을 橋瑞超가 일본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그림 1.>은 현재 日本 京都 龍谷大學大宮圖書館에 보관되어 있는 敦煌 출토본 『本草經集注·序錄』이다.³⁷⁾³⁸⁾

- 34) 陶弘景 編.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3.
35)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5. : 岡西爲人. 本草概說. 大阪. 創元社. 1997. p.53. 재인용.
36)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5. : 赤堀昭. 敦煌本『本草集注』解説. 上山大峻. 敦煌寫本本草集注序錄·比丘含注戒本(龍谷大學善本叢書 16). 京都. 法藏館. 1997. pp.220-231. 재인용.
37)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5. : 眞柳誠. 敦煌本『本草集注』. 漢方の臨床. 1994. 41(12). pp.1522-1524. 재인용.
38) “영국 고고학자 아우렐 스타인이 구입한 본초집주 돈황본은 영국 대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일본의 眞柳誠이 료토의 류코쿠대학의 오미야 도서관에서 발견하였다.” :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5. : 黒田源次. 普魯西學士院所藏中央亞細亞出土醫方書四種. 支那學. 1935. 7(4). pp.633-665. 재인용.



그림 1. 敦煌本『本草經集注·序錄』의 51번째(마지막)장³⁹⁾



그림 2. 敦煌本『本草經集注·序錄』의 50번째, 51번째 장⁴⁰⁾

『本草經集注』敦煌本是 51장의 종이가 두루마리 형식으로 말려 있으며, 폭이 28cm에 길이가 1,997cm이다. 종이(28cm×40cm)는 당나라 시기에 관료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종이와 동일하며 뿔나무로 만든 종이를 사용하였고 이를 가로질러 규칙적인 줄을 따라 톱니모양이 만들어졌다. 처음 3행은 전해지지 않고 서명을 포함 720행이 남아 있다. <그림 2.>는 51번째와 50번째 장을 함께 비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

식으로 46번째에서 50번째까지의 다섯 장의 종이 모두 다른 재질이다. 이 부분은 ‘諸藥七情畏惡’로 알려져 있으며 45번째 장의 대부분을 나중에 수정하여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수정된 부분이 단순히 원본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주석이 아니라 『本草經集注』의 다른 발행본에서 가져온 부분을 덧붙여 만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⁴¹⁾ 또 <그림 1.>에서 보듯, 敦煌본의 마지막 세 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본초집주』의 제1권 서록, 화양도은거가 편찬하였고 개원 6년 9월 10일, 위지노린은 서울에서 『본초』1권을 필사하여 진시에 기록을 마쳤다.(本草集注, 第一序錄, 華陽陶隱居撰. 開元六年, 九月十日, 尉遲盧麟, 於都寫本草一卷, 辰時寫了記.)”

開元 6년은 唐 玄宗 치세인 서기 718년으로, 尉遲盧麟이란 사람이 당시의 수도인 長安에서 『本草經集注』의 제1권 序錄을 옮겨 적었다는 내용이다. 『本草經集注』7권 본의 편찬을 서기 500년 이후로 보고, 『新修本草』의 편찬이 65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본권은 『新修本草』의 편찬 이후에도 『本草經集注』가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 또 처음 3행(行)이 떨어져 나간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⁴²⁾ 羅振玉은 이 문서의 사진을 지리학자 小川琢治로부터 빌려 1916년 『吉石庵叢書』라는 그의 저서에 영인하여 수록하고⁴³⁾ 「開元寫本本草集注序錄殘卷」이라고 제목을 붙였다.⁴⁴⁾ 그런데 이 사본은 66번째 줄을 없애고 글자나 전체 부분을 고치거나 보완한 것이다.⁴⁵⁾ 이러한 문제로 인해 吉石本은 范行準에 의해

41)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6.

42) 吳昌永. 神農本草經에 관한 연구. 대전. 대전대학교. 2009. p.55.

43) 총 4집 24책으로 구성. 敦煌석실 및 일본 동경 고산사(高山寺) 등에서 발견된 각종 서적의 잔권을 집성. 初集에 敦煌에서 출토된 『본초경집주』의 잔권 1권이 수록됨.

44) 吳昌永. 神農本草經에 관한 연구. 대전. 대전대학교. 2009. p.55.

39) <그림 1.>은 敦煌本『本草集注』卷一의 마지막 부분으로 龍谷大學大宮圖書館 西域文化資料번호 530이다. :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6.

40) <그림 1.>과 동일한 자료로서 마지막의 50, 51번째 종이이다. :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6.

1955년 상해 羣聯出版社에서 재인쇄되어 학문적 연구에 사용되었다.⁴⁶⁾ 日本에서는 1997년에 龍谷大學에 소장된 원본을 번역하고 주석을 붙인 사본이 만들어졌으며⁴⁷⁾, 中國의 본초·문헌학자 尙志鈞은 敦煌本, 吐魯番 및 『新修本草』, 『經史證類備急本草』 등의 서적을 참고로 하여 1994년에 輯校本『本草經集注』을 편찬하였다.⁴⁸⁾

2) 吐魯番本 : 朱墨雜書의 형태를 보여준 殘卷本

약 백여년 전 중앙아시아와 중국서부지역은 고고학적 탐구의 중심지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조사단이 엄청난 유물을 발굴하였다. A. Grunwedel과 Von Le Coq이 1902년에서 1912년까지 吐魯番으로 네 번째 탐험에서 거둔 성과는 베를린에 있는 Preussisch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프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 보관되었다.⁴⁹⁾ 黒田源次는 1933년 아카데미에서 4개의 중국 문서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중 하나의 문서가 陶隱居의 『本草經集注』의 원본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⁵⁰⁾ 1952년 羅福頤는 黒田源次の 사진을 복사하여⁵¹⁾ 『西陲古方技書殘卷彙編』에 포함시켰다.⁵²⁾ 일본의 眞柳誠은 黒田源次の 흑백 사진으로 명확한 결

론을 내릴 수 없어 프러시아 과학아카데미를 방문하였다. 독일이 양분됨에 따라 베를린 아카데미가 나뉘어져, 베를린주립박물관의 서베를린 프러시아 문화유산재단(Staatliche Museen zu Berlin Preussischer Kulturbesitz)만으로는 연구 성과가 없었다. 眞柳誠은 1990년 독일 통일이후 1992년 동베를린의 과학아카데미(Akademie der Wissenschaften)에서 의학 문서들을 발견하였다. 당시 이 문서들은 베를린주립도서관의 프러시아문화유산 동양학부문(Sttatsbibliothek zu Berlin Preussischer Kulturbesitz Orientabteilung)으로 옮겨졌다. 1993년 6월에 칼라로 된 전체사본을 받았고 학문적인 목적을 위해 그 사본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으며 1998년 3월에는 베를린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고 한다.⁵³⁾ <그림 3.>은 바로 이를 통해 발견한 『本草經集注』의 殘卷이다.



그림 3. 吐魯番本『本草經集注』잔편 일부⁵⁴⁾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吐魯番본은 큰 글자의 붉은 글씨와 검은 글씨가 있고 또 작은 글자의 검은 글씨가 있다. 「序錄」의 편찬 과정에 의하면 붉은 글씨는 『神農本草經』, 검은 글씨는 『名醫別錄』 그리고 작은 글씨의 검은 글씨는 주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朱墨雜書의 형식을 실제로 보여주는 근거라 할

45)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5. : 赤堀昭. 敦煌本『本草集注』解説. 上山大峻. 敦煌寫本本草集注序録·比丘含注戒本(龍谷大學善本叢書 16). 京都. 法藏館. 1997. pp.220-231. 재인용.
46)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5. : 赤堀昭. 敦煌本『本草集注』解説. 上山大峻. 敦煌寫本本草集注序録·比丘含注戒本(龍谷大學善本叢書 16). 京都. 法藏館. 1997. pp.220-231. 재인용.
47)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6.
48) 蘇敬等撰. 尙志鈞輯校. 新修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4. p.4.
49)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9.
50)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9. : 黒田源次. 普魯西學士院所藏中央亞細亞出土醫方書四種. 支那學. 1935. 7(4). pp.633-665. 재인용.
51) 叢春雨 主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25.
52) 陶弘景 編.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6.

53)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9.
54) 독일 베를린주립박물관의 프러시아 문화유산 동양학부문(Sttatsbibliothek zu Berlin Preussischer Kulturbesitz Orientabteilung) 소장 번호 Ch1036r :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40.

수 있을 것이다.

3) 藤原宮 유적에서 발굴된 목간

三卷本 존재의 사료

일본의 나라 국립 문화재 연구소의 목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藤原宮(후지와라저택, 694-710)의 SD 배수구에서 발굴된 총 25,755개의 목간 중 72번과 74번을 포함해서 단 4개의 목간에 본초(本草)라는 말이 사용되었다.⁵⁵⁾ <그림 4.>는 일본의 후지와라 저택에서 발굴된 목간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 있다. “다이호(大和)3년(서기703년)”에 “藥典”과 “草集, 本草集注… 本本草.(72번)” 또 다른 구절은 “本草集注上卷”(74번)이었다.⁵⁶⁾



그림 4. 藤原宮 유적 발굴 목간⁵⁷⁾

<그림 4.>의 오른쪽이 74번 목간의 사본이고 그 목간을 베낀 것이 왼쪽이다.⁵⁸⁾ 목간(164 mm × 21 mm × 2 mm)의 상부는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하부가 손상되었다. 이는 『本草經集注』3권본이 실재하였으며, 일본에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55)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8. <http://www.nabunken.go.jp/open/mokkan/mokkan2.html>

56)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8. : 奈良県教育委員会. 藤原宮(奈良県史跡名勝天然物調査報告第25冊). 奈良. 奈良県教育委員会. 1969. p.6. 재인용.

57) 우측은 藤原宮에서 출토된 목간(자료번호 74)이며, 좌측은 이를 모사한 것이다. :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8.

58)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 35(2). p.138. : 日本醫史學會. 圖録日本醫事文化史料集成. 第1卷. 東京. 三一書房. 1977. p.28. 재인용.

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本草經集注』의 현존자료에 대한 眞柳誠의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本草經集注』의 소재와 소장경위로 그리고 모습을 직접 확인하게 해준 실증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한의학의 원전 연구에 있어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서지학적 연구’에 있어 자료를 직접 찾고 실증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선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집복본『本草經集注』

『本草經集注』는 北宋 말에 亡佚되어 『隋書』, 『舊唐書』, 『新唐書』 등의 역사서와 『新修本草』, 『經史證類備急本草』 등의 본초서에 그 이름과 내용이 흩어져 전해질 뿐 原書의 형태와 내용을 살펴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00년대 초반 敦煌에서 발굴된 유물 중 『本草經集注·序錄』의 필사본이 발견되었으며, 吐魯番에서 발굴된 유물 중 『本草經集注』 일부 약물에 대한 (殘卷이 발견되었다. 이후 『本초경집주』에 대한 복원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尙志鈞은 敦煌본, 吐魯番本 『本草經集注』殘卷을 비롯한 현존하는 각종 古本草書와 『新修本草』, 『經史證類備急本草』 등의 관련 서적을 참고로 하여 약물 730조를 수집하였고, 敦煌本 「序錄」 중의 ‘諸藥七情畏惡’의 목차 편성에 근거하여 ‘玉石, 草木, 蟲獸, 果, 菜, 米, 有名無實’의 7종으로 구분하여 전서를 7권으로 나누어 1994년 『本草經集注(輯校本)』을 편찬하였다.⁵⁹⁾ 그의 복원연구에서 底本으로 삼은 것은 『本草經集注』殘卷과 현존하는 서적 중 『本草經集注』의 내용을 가장 먼저 인용한 『新修本草』, 『千金翼方』, 『經史證類大觀本草』 등의 책이다. 校勘에는 『本草經集注』의 朱書와 墨書를 白子和 黑子로 구분해 놓은 『證類本草』의 여러 판본을 主校本(主校本)으로 삼고, 『醫心方』, 『本草和名』, 『圖經衍義』,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 『本經疏證』 등을 傍校本(傍校本)으로 삼았다. 또 『神農本草經』의 여러 集복본인 孫星衍本, 黃奭本, 顧觀光本, 森立之本 등도 함께 참고하였다. 尙

59) 蘇敬等撰. 尙志鈞輯校. 新修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4. p.4.

志鈞은 이러한 서적들을 참고로 하여 輯佚, 校勘, 考證, 標點, 訓詁, 注釋 등의 과정을 통해 『本草經集注』의 集復·校勘을 진행하였다.

수록된 약물의 수에 대해서는 후세의 각종 서적에서 전하는 내용을 통해 『新修本草』의 850종 약물로부터 『本草經集注』730종 약물을 되살렸다. 『新修本草』에 수록된 850종의 약물은 『本草經集注』의 약물에 새로 114종을 더한 것이며, 또한 본래 한 조로 되어있었던 ‘海蛤·文蛤’, ‘葱·薤’, ‘粉錫·錫銅鏡鼻’, ‘大豆黃卷·赤小豆’, ‘白冬瓜·白瓜子’, ‘冬葵子·葵根’ 등의 약을 각각 두 조로 나누어 이로 인해 또한 6조가 더해져, 『新修本草』에 수록된 약물은 모두 850종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新修本草』의 약물 중 두 조로 나뉜 것을 다시 합치고, 새로 더한 114종을 제외하여 『本草經集注』본래의 형태인 730종으로 되살렸다고 한다.⁶⁰⁾

약물의 분류와 순서는 敦煌에서 출토된 『本草經集注·序錄』의 “諸藥七情畏惡”의 분류와 순서에 의거하여 玉石, 草木, 蟲獸, 果, 菜, 米食, 有名無實의 7종으로 나누고 그 순서를 따랐다. 또 “諸藥七情畏惡”에 나오지 않은 약물의 분류와 순서에 대해서는 『新修本草』의 약물목록, 陶隱居의 약물 注文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또 7종 약물을 다시 상·중·하 三品으로 구분하는 과정도 “諸藥七情畏惡”을 따랐는데 水銀, 黃耆 등 일부 약물의 경우 『新修本草』이후의 본초서와 『本草經集注·序錄』 “諸藥七情畏惡”의 분류가 달라 “諸藥七情畏惡”를 기준으로 하였다.⁶¹⁾

朱書와 墨書의 구분, 즉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은 『證類本草』를 참고하였다. 『證類本草』이전에 『新修本草』에서 朱書와 墨書를 구분하여 편찬하였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新修本草』 판본에는 모두 표기가 빠져 있고 『證類本草』에서 『本草經』의 내용을 白字, 『名醫別錄』의 내용을 墨字로 표기한 것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證類本草』의 판본마다 차이가 있는 경우⁶²⁾에는 다시 『本草綱目』, 각

종 『神農本草經』輯本을 참고하였다. 또 輯校의 底本과 校本에서 『本草經』과 『別錄』의 문장 감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底本을 기준으로 하되, 底本의 오류가 명백할 경우에는 校本을 따랐다.⁶³⁾ 또 저본에 글자가 빠진 것이 확실할 경우, 교본에 의거하여 보충하고,⁶⁴⁾ 저본과 교본의 글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 약물의 작용을 살펴 이치에 합당함을 따라 선택하며,⁶⁵⁾ 교본의 두 학설이 모두 합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경우 교감의 기록이 있어 두 설을 함께 수록하였다.⁶⁶⁾

生出版社. 1994. pp.8-9. : “가령 成化本 『政和本草』, 商務本 『政和本草』는 창포, 용담, 白英, 사향, 녹용, 姑活 등의 조항을 모두 목서로 기록하였고, 『本經』문장인 白字 표기는 없다. 人衛版 『政和本草』에도 曾靑 조문에 백자의 『本經』 문장 표기는 없다.”

63) 陶弘景 編.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0. : “가령 6권 ‘羴羊角’ 조는 본래 武田本 『新修本草』를 저본으로 삼는데, 저본 ‘羴羊角’ 조문 중 ‘效味’, ‘補寒’ 등 단어가 있다. 『千金翼』, 『大觀』, 玄『大觀』, 『大全』, 『證類』, 『政和』, 成化本 『政和』, 『品匯』, 『綱目』 등 해당하는 각종 교본에서는 모두 ‘咳嗽’, ‘補中’이라고 되어있으므로 본서에서도 교본을 좇아 ‘咳嗽’, ‘補中’으로 교정하였다. 注文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注文을 某書에 근거하여 고쳤다.”

64) 陶弘景 編.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10-11. : “가령 본서 3권 草木 上品의 ‘蔓荊實’ 조는 본래 武田本 『新修本草』를 저본으로 하는데, ‘蔓荊實’ 조문 중에 ‘去長’ 2자가 있다. 『千金翼』, 『大觀』, 玄『大觀』, 『大全』, 『證類』, 『政和』, 成化本 『政和』, 『品匯』, 『經疏』, 『綱目』, 『圖考長編』 등 기타 각종 책에서는 모두 ‘去長蟲’이라고 되어있으므로 본서에서는 교본에 의거하여 ‘蟲’자를 보충하였다.”

65) 陶弘景 編.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1. : “가령 본서 3권의 초목 상품 ‘복령’ 조문은 武田本 『新修本草』를 저본으로 하는데 저본 ‘복령’ 조문 중 ‘好唾’ 2자가 있다. 玄『大觀』에서는 ‘好唾’로 되어있고 『千金翼』, 『大觀』, 『品匯』에는 ‘好唾’로 되어있고 『政和』, 成化本 『政和』, 『大全』, 『證類』, 『綱目』, 『圖考長編』, 『疏證』 등에서는 ‘好唾’로 되어있다. ‘唾’와 ‘唾’는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므로 傳抄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듯하다. 약물의 효능으로 추론해보면 복령에는 이수효능이 있어 능히 好唾를 다스릴 수 있으므로 마땅히 ‘好唾’로 바로잡았다.”

66) 陶弘景 編.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11-12. : “교감시 뜻이 두 가지일 수 있는 경우, 校記 중에 설명하였다. 본서 2권 玉石 下品 ‘錫銅鏡鼻條’에 ‘生桂陽’ 3자가 있다. 『大觀』, 『政和』, 『大全』 등 각종 판본에는 목자 『別錄』문장으로 되어있고 『綱目』 『品匯』, 『圖經』주에도 『別錄』문장으로 되어있으며 『神農本草經』 각종 집본에는 모두 이 3자를 『本草經』문장으로 다

60) 陶弘景 編.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6-7.

61) 陶弘景 編.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7-8.

62) 陶弘景 編.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11-12.

考證의 과정은 글자의 변형, 누락 등을 고증하여 복원하는 것으로 피휘자로 인한 변형을 복원한 것 등을 말하는데 집고본『본초경집주』에서는 『新修本草』 등에서 諱字를 피하기 위해 『本草經集注』의 原字를 바꾸거나 누락시킨 경우 이를 『本草經集注』殘卷 등을 참고하여 원래의 형태로 돌려놓았다. 당태종 李世民, 당고종 李治의 ‘世’, ‘治’ 등의 글자로 인해 諱를 피하기 위해 『新修本草』 약물 조문 중 ‘世’는 ‘俗’으로, ‘治’는 ‘療’, 혹은 ‘造’로 대체하거나 혹은 삭제하고 쓰지 않았다. 鷲屎, 鼯鼠 등의 효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新修本草』, 『證類本草』에서는 “鷲屎, 主蠱毒”, “鼯鼠鼠, 主癰疽”라고 되어있다. 다만 吐魯番에서 출토된 『本草經集注』 단편에서는 “鷲屎, 主治蠱毒”, “鼯鼠鼠鼠, 主治癰疽”라고 되어있다. 이를 통해 『本草經集注』에서는 효능부분이 본래 ‘主治…’였음을 알 수 있다. 『新修本草』에서는 당고종 이치의 휘를 피하기 위해 ‘主治’의 ‘治’자를 생략하였다. 이런 약물 조문 중 ‘治’는 ‘療’로 바꾸었다. 宋代 본초에서도 『新修本草』의 예를 따라 ‘主治…’를 ‘主…’로 하거나 혹은 ‘療…’로 하였다. 尙志鈞은 輯校本의 편찬 과정에서 『本草經集注』의 體例를 모방하여 약물 조문 중 소갈, 중풍 등의 병명에 ‘主治’ 2자를 앞에 두어 “主治消渴, 中風”의 형식으로 하였다. 또한 약물 조문중 益氣, 利水 등 효능의 앞에 ‘主’자를 두어 ‘主益氣, 利水’의 형식으로 하였다.⁶⁷⁾

尙志鈞의 복원 연구는 일부 잔권만이 존재하는 『本草經集注』에 대해, 잔권과 관련 서적, 즉 『本草經集注』를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인용하였던 『新修本草』의 현존본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본초학의 양적 발달이 이루어진 宋代의 『經史證類備急本草』 등의 관련 서적을 통해 현존하지 않는 책의 내용을 되살린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책의 복원이란 우선적으로 실재하는 판본의 실사와

고증 또 그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복원의 작업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관련 서적을 통해 되살리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때 『本草經集注』輯校本은 이상의 과정을 통해 약 1000여년 가까이 자취를 감추었던 『本草經集注』를 다시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考察

현존하는 『本草經集注』筆寫本 및 『新修本草』, 『經史證類備急本草』 등 이후에 간행된 주요 본초학 서적과 『隋書·經籍』, 『舊唐書·經籍』, 『新唐書·藝文』 등의 역사서와 『續日本記』 등 책이 전과된 나라에서 간행된 역사서에 모두 『本草經集注』의 저자를 陶弘景(452~536)이라 기록하고 있다. 「序錄」에 “隱居先生曰”이라 하여 스스로 호를 칭하는 문체가 있어 본인이 직접 기록한 것이라 하기는 힘든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陶弘景의 학문을 문인이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최초의 판본이 陶弘景의 생전에 편찬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책의 저자는 陶弘景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간행 연대는 『補闕肘後百一方』의 序文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A.D.500년 이전에 3권본이 편찬되고, A.D.500년 이후에서 늦어도 『隋書』가 편찬된 A.D.656년 이전에 7권본이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序錄」에 3권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7권으로 확대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과 『補闕肘後百一方』의 序文에서 「上卷」을 언급한 점, 그리고 日本의 藤原宮의 죽간 유물에 “本草集注 上卷”이라 기록된 점을 미루어 초기 3권으로 편찬하여 활용하다가 다시 내용을 추가하고 확대하여 7권으로 편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존하는 판본으로 敦煌과 吐魯番에서 출토된 잔권이 있다. 敦煌본은 「卷第一·序錄」의 내용이 51장의 종이에 필사되어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다. 吐魯番본은 豚卵, 燕屎, 天鼠屎 등 4종 약물의 내용이 필사되어 있으며 『神農本草經』의 내용은 붉은 글씨로 『名醫別錄』의 내용은 검은 글씨로 필사되어 내용으로만 전하던 “朱墨雜書”의 편찬 형태를 직접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발굴된 자료는 현재 敦煌은 日本

루지 않았다. 이에 근거하면 ‘生桂陽’ 3자는 응당 『別錄』의 문장일 것이다. 단 陶弘景 주문에는 ‘『本經』에 이르기를 ‘生桂陽’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도씨의 주에서 ‘生桂陽’ 3자는 응당 『本經』의 문장이다. 두 가지 설이 같지 않으므로 교감의 기록에 있어 두 가지 설을 같이 두었다.”

67) 陶弘景 編.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12-13.

京都의 龍谷大學圖書館에, 吐魯番본은 독일 베를린 주립도서관의 프러시아문화유산 동양학부문(Sttatsbibliothek zu Berlin Preussischer Kulturbesitz Orientabteilung)에 소장되어 있다. 眞柳誠은 敦煌本과 吐魯番本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현소재지를 파악하여 실사하고 고증하였다. 또 尙志鈞은 『本草經集注』현존본과 『新修本草』현존본 및 『經史證類備急本草』등을 토대로 책의 목차를 파악하고, 약물의 수와 분류 및 기록 순서를 정리하며, 朱書와 墨書의 구분과 내용의 校勘 및 考證 등의 과정을 거쳐 『本草經集注』輯校本을 편찬하였다.

眞柳誠 등의 實查考證研究가 그간 책 속의 내용으로만 전해지던 『本草經集注』잔권의 실재를 확인하여 특히 신농본초경의 내용을 주서로 명의별록의 내용을 목서로한 주부잡서의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서지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면, 尙志鈞 등의 復原研究는 후대의 서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밖에 확인할 수 없었던 본초학의 전범(典範)이라 할 수 있는 『本草經集注』의 현존하지 않는 부분을 역사적 사실과 관련 서적을 통해 복원함으로써 그 원래의 모습을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의학의 고전, 원전을 연구하는 이유가 단지 예전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으로 그 원형의 모습을 다시 보고 느끼고 이해하며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생한 가치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本草經集注』現存本에 대한 고증연구와 復原研究는 그러한 과정의 중요한 구간을 제공하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結論

이상에서 『本草經集注』의 저자, 편찬시기, 편찬과정, 현존판본 및 복원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本草經集注』의 저자에 대해 陶弘景 또는 그의 후인이 陶弘景의 이름으로 편찬하였다는 학설이 모두 일정한 근거를 지니고 있지만 최초의 편찬 연대가 陶弘景의 생존 당시인 A.D.500년 이전임을 미루어 볼 때 『新修本草』및 『隋書經籍』등에서 밝히고 있듯

陶弘景이 편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2. 저작 시기와 과정은 A.D.500년에 작성되었다고 기록된 『補闕肘後百一方·序文』와 七卷本『本草經集注·序文』에서 밝히고 있는 편찬 과정을 근거로, 처음 A.D.500년 이전 三卷으로 편찬되었다가 A.D.500년 이후 七卷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현존판본으로 敦煌에서 출토된 七卷本「卷第一·序錄」과 吐魯番에서 출토된 豚卵, 燕屎, 天鼠屎 등 4종 약물의 殘卷이 있으며 이는 眞柳誠에 의해 각기 日本 京都의 龍谷大學圖書館과 독일 베를린주립도서관의 프러시아문화유산 동양학부문(Sttatsbibliothek zu Berlin Preussischer Kulturbesitz Orientabteilung)에 소장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4. 尙志鈞은 『本草經集注』의 復原연구를 통해 『本草經集注』輯校本을 편찬하였다.

약 1000여년 가까이 모습을 감추었던 『本草經集注』는 1900년 敦煌과 吐魯番에서 殘卷이 출토되어 그 연구가 점차 활발해져서 現存하는 殘卷의 소재와 모습이 밝혀지고 輯校本『本草經集注』가 편찬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本草經集注』의 서지학적 특징, 본초이론의 특징, 본초학 발달사에 미친 영향 및 임상적 활용 방안 등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논문>

1. 박종현, 박시덕, 신상우. 敦煌本 傷寒論 중 『輔行訣藏府用藥法要』에 관한 研究. 한국한의학회연구원 논문집 제13권 제1호(통권19호). p.45.
2. 吳昌永. 神農本草經에 관한 研究. 大田. 대전대학교. 2009. p.54, 55.
3. 眞柳誠. 敦煌本『本草集注』. 漢方の臨床. 1994. 41(12). pp.1522-1524.
4. 眞柳誠. 3卷本『本草集注』と出土史料. 藥史學雜誌. 2000年12月. 35卷2號. pp.135-136, pp.138-140.

<단행본>

1. 葛洪 撰. 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4, 6.
2. 岡西爲人. 本草概說. 大阪. 創元社. 1997. p.53.
 3. 陶弘景 編. 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3-13.
 4.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 1卷.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9. p.271.
 5. 藤原繼繩ら. 續日本紀. 東京. 吉川弘文館. 1935. p.524.
 6. 藤原佐世. 日本國見在書目錄. 東京. 名著刊行會. 1996. pp.80-81.
 7. 蘇敬 等 撰. 尙志鈞 輯校. 新修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4. p.4.
 8. 王淑民. 敦煌石窟秘藏醫方. 北京. 北京醫科大學中國協和醫科大學聯合出版社. 1999. p.19.
 9. 李一珉. 道藏·第二二冊·雲笈七籤·卷一百七. 北京. 文物出版社. 1988. p.733.
 10. 赤堀昭. 敦煌本『本草集注』解說. 上山大峻. 敦煌寫本本草集注序錄·比丘含注戒本(龍谷大學善本叢書16). 京都. 法藏館. 1997. pp.220-231.
 11. 叢春雨 主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25.
 12. 許嘉璐 主編. 舊唐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1602.
 13. 許嘉璐 主編. 隋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p.922-924.
 14. 許嘉璐 主編. 新唐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1251.
 15. 許嘉璐 主編. 梁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p.664-665.
 16. 洪元植, 尹暢烈 編著. 증보중국의학사. 서울. 一中社. 2002. p.204.
 17. 黑田源次. 普魯西學士院所藏中央亞細亞出土醫方書四種. 支那學. 1935. 7(4). pp.633-665.
 18. _____. 『雲笈七籤』卷107. 『正統道藏』第38冊·大玄部.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77. p.371.

<기타매체>

1. 四庫全書·史部·正史類. 文淵閣欽定四庫全書CD.